

강진군, 내년 '피싱 마스터스 대회' 규모 확 키운다

올해 지역경제 유발 효과 20억
내년 5천명·경제효과 50억 기대
토너먼트서 일반대회 방식 변경
'누구나 반값여행' 연계 부담 줄여

올해 대규모 낚시대회를 전국을 뜨겁게 달군 '강진 피싱 마스터스 대회'가 내년 4월부터 더욱 풍성해진 어종과 시상규모로 재개된다.

올해 대회를 통해 20억원 이상의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기록한 강진군은 내년 5000명 이상의 방문객과 50억원의 경제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6일 강진군에 따르면 피싱 마스터스 조직위원회는 최근 SDN(주)광주사업소에서 2025 강진 피싱 마스터스 대회 일정 확정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은 조직위원장 최기혁 SDN(주)의장과 강진군 전채영 해양수산과장을 비롯해 조직위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대회 성과 분석과 2025 대회 운영 방향, 상금 규모, 대상 어종 등을 확정했다.

내년 대회에서 가장 큰 변화는 대상 어종의 다양성

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기존 감성돔, 문어, 대방어에 국한됐던 어종을 감성돔, 문어, 쭈꾸미, 붓바리, 대방어 등 총 5개 분야로 늘리고 더 많은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회 방식을 기존의 토너먼트 방식에서 일반 대회 방식으로 변경했다.

문어와 쭈꾸미는 단일 대회로 진행되며 나머지 대회는 이를 동안 진행, 조과 합산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2025 강진 피싱 마스터스 대회는 내년 4월 감성돔 선상낚시대회를 시작으로 5월 붓바리 선상낚시대회, 9월 문어 선상낚시대회와 쭈꾸미 선상낚시대회, 10월 감성돔 선상낚시대회 시즌2, 11월 대방어 선상낚시대회로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대회 시상금 규모를 총 2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감성돔과 대방어 우승자에게는 각 1500만원, 붓바리 1000만원, 쭈꾸미와 문어 각각 5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하위 순위까지 시상금을 차등 지급하며 특별상과 행운 상품 등도 협찬 및 후원을 통해 마련해 순위권

밖 참가자들에게도 뜻깊은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강진군은 올해 강진 피싱 마스터스 대회 전후로 강진군 낚시객이 1.5배 가량 늘었으며, 12월 현재까지 약 1만3000명 이상의 낚시객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대회부터 11월 대회까지 참가자·가족·지인을 포함해 약 2500명 이상이 마량면을 방문했으며 강진군 전체에 20억원 이상의 직·간접적인 경제효과를 나타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내년에는 다양한 어종과 2100명 이상의 참가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동행인을 포함

하면 약 5000명 이상이 강진군을 방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통해 최소 50억원 이상의 직간접적 경제 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강진군은 대회 홍보를 위해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논의하고 있으며 MBC SPORT+ 방송사와 협의

중이다. 또 내년 국제낚시박람회, 강진군 축제 부스 등을 통해 대회 참가자를 모집, 홍보할 예정이며 '2025 강진 누구나 반값여행' 과도 연계해 선수들의 참가비 부담을 줄이고 관광객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회 세부 사항은 내년 1월 강진 피싱 마스터스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 피싱 마스터스 대회가 단순 행사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내년에도 알차게 준비하겠다"며 "2025년에도 강진 누구나 반값여행 등 강진 주요 정책에도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광양 성황마을, '뉴빌리지 사업' 공모 선정

광양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4년 뉴빌리지' 사업 공모에 광양읍 목성리 성황마을이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뉴빌리지 사업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연립, 다세대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도로 개설, 주차장 조성 등 생활·인프라를 공급해 아파트 수준의 정주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인프라 개선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주거시설의 자율적인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금 융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올해 선정된 광양읍 성황마을의 주요 사업내용은 △주택정비(집수리, 슬레이트 지붕정비, 빈집정비) △생활·편의 기반 시설사업(도로 개설, 주차장 조성 및 정비, 공원정비 등) △건강·복지 거점시설 사업(다목적 체육센터 1개소) 등이다.

광양시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40억원(국비 144억원, 지방비 9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내년 6월까지 도시 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양=안영준 기자



여수시국동주민자치위원회들이 관내 주택단지 9곳에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 국동 주민자치위, 골목길 '보이는 소화기' 설치

여수시 국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올해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주택단지 골목길 9곳에 '보이는 소화기' 2대씩을 비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국동 주택단지는 경사가 급하고 도로 폭이 좁으며 골목길에 차량 통행이 불가해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렵지만, 집들은 빼곡하게 붙어 있어 피해가 확산되기 쉬운 화재취약지역으로 꼽

혀왔다.

이에 국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주택단지 골목길 곳곳에 소화기를 눈에 띄게끔 설치하고 위급한 상황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여복례 국동 동장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국동을 만들기 위해 매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순천시,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집중 지원

내년 225억 예산 중 45% 활용

순천시는 2025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본예산 대비 105억원이 증액된 25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 중 약 45%를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투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3만7000여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확대, 매출 기반·경쟁력 강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3대 중점 전략을 마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경기 침체, 경영 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도 15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최대 3000만원까지 전액 보증을 지원하며 대출금리 연 5%를 보전해 주는 이자 지원 사업과 병행한다.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 보증 지원도 내년 역대 최대 규모로 조성된다. 올해 15억원이던 지원 규모를 내년 30억원으로 두 배 늘려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강화 및 수시 신청 통한 신규 지정업소 적극 발굴·지정, 디지털기 설치비 최대 100만원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어 소상공인들

이 폐업, 사망 등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1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소상공인을 단순히 지원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들과 함께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도 주력한다.

올해 하반기에 발족한 '순천시 지역경제 상생협의회'를 내년에는 정례화해 민·관·학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활력 방안, 소상공인과 대형 유통업체 간의 협력 방안 등을 면밀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순천=배서준 기자

여수시, 2030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

여수국가산단 사업구조 개편 대응

여수시가 석유화학업계의 위기 대응과 미래 신성장산업 유치를 위해 '2030 여수시 투자유치 종합계획'을 수립, 내년 1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26일 여수시에 따르면 2030년 단일 연도 기준 20개 기업, 2조원 투자유치를 목표로 여수시 핵심 전략산업 중심 투자유치, 수요자 중심 국내외 투자유치 기업설명회(IR) 및 홍보, 투자유치 사전컨설팅 및 기업지원체계 운영, 투자유치 제도개선 발굴 및 인센티브 지원 등 4대 전략과 10개 세부 과제를 설정했다.

먼저 '여수시 핵심 전략산업'은 석유화학, 수소, 에너지저장, 도심형 항공모빌리티(UAM), 화이트바이오, 관광·레저 등으로, 지역 내 산업 비중과 잠재 성장 가능성 높은 산업이 해당한다.

시는 핵심 전략산업 중심의 투자유치를 위해 '산업별 전략투자구역(국가산단, 울촌·묘도항만재개발지구, 울촌산단, 화양·

경도지구 등)을 지정하고 신규 산단 조성 및 전력, 공업용수, 주차장 등 산업 인프라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투자 잠재 기업인 대상 초청형 기업설명회(IR), 기업 방문 강화 등 수요자 중심의 국내외 홍보로 투자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고 투자 가능 부지를 전수조사해 입지·인허가 사전컨설팅 등 기업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유치 관련 개발규제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마련해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보조금 지원으로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등 투자 활성화와 후속 투자를 유도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지난 23일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여수산단 재도약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 여수시 행정지원단'을 구성, 실무를 담당할 '석유화학 위기 대응팀(TF)'도 신설·운영하기로 했다.

정부 지원안에는 △석유화학산업 위기

로 인한 고용 및 지역경제 위축 대응 △자발적 사업재편 유인책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등의 방안이 담겼다.

이에 시가 마련한 '행정지원단'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17개 부서가 참여하며 산단 지원 및 개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지원, 기업 건의 및 규제 해소 등 6개 분과로 운영된다. 매월 정기회의를 거쳐 분야별 지원시책을 발굴·추진할 예정이다.

위기 대응팀(TF)은 산업지원과 팀장 1명 등 총 3명으로 위기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위기 대응지역 지정'을 위한 전남도 추진단과의 공조 업무를 맡는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전남도와 '여수산단 석유화학산업 위기대응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위기대응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11월에는 '여수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왔다. 특히 '산업위기 대응지역 지정'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강력히 건의해 지원방안에 "내년 상반기 중에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성과를 얻어낸 바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